

안락사 허용해야 하나

김승환/MBC 보도국 정보과학부 기자

말 기암 환자에게 남은 생명은 길어야 6개월 정도. 이들은 하루 하루를 뻗속을 파고드는 극한의 고통과 사투를 벌이다 결국 사망한다. 첨단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의료진이 이들 말기암 환자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잠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진통제 투여가 전부다. 죽음 그 자체보다 참기 힘든 고통. 이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희생 가능성이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편안히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대부분의 나라가 안락사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 의회가 안락사를 승인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원이 의결한 새 법안은 세 가지 조건, 즉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여야 하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며,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해야 의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가 차원의 허용은 아니지만 미국의 오리건주는 97년 주민 투표를 통해 안락사를 승인했고, 현재 워싱턴주와 뉴욕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안락사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직접 목숨을 끊는 것이 적극적인 안락사라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유지장치를 떼,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소극적 안락사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 행위로 규정해 엄하게 규제하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안락사 허용에 대한 논

의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락사를 허용하는 어떠한 법 제정도 반대하는 움직임이 종교계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며, 인간의 기준에서 생명의 존재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이 생명 경시와 인간의 존엄성 훼손 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네덜란드의 안락사 승인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화방송은 여론 조사기관인 인사이트 리서치사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자들을 놀라게 했다.

우선 응답자들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67퍼센트가 찬성한다고 대답했고, 소극적 안락사는 72퍼센트가 찬성했다. 안락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번 여론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안락사 문제를 생각할 때 환자나 가족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환자 본인의 편안히 죽을 권리 못지 않게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식물인간 안락사에 대한 동의율이 70퍼센트에 이른다는 점이 그 증거다. 우리 국민들이 안락사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만큼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서 안락사 문제가 논의돼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PPFK